

개에서의 두갈래근 힘줄 윤활막염의 진단 및 치료 1예

이재연, 정기현, 지현철, 이영원, 최호정, 박성준, 김명철, 정성목*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서 론: 두갈래근 힘줄 윤활막염은 상완골 근위부의 결절사이고랑내의 힘줄집 및 윤활낭에 발생하는 염증이다. 이것은 주로 중·대형견에서 원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며 파행이 만성 또는 진행성으로 나타난다.

재료 및 방법: 3개월령, 35kg의 수컷 볼조이가 간헐적인 좌측 전지 파행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1년 전 심한 운동 후부터 간헐적인 파행 및 동통을 호소하였다. 신체검사에서 좌측 두갈래근의 촉진 또는 견관절의 굴곡 및 신장시에 통증을 나타내었다. 방사선 검사에서 좌측 견관절의 결절 사이 고랑에서 뼈결돌기와 관절 주위 변화가 관찰되었다. 관절 조영상에서는 거칠고 불규칙한 좌측 두갈래근 힘줄을 관찰할 수 있었다. 활액검사를 통해 퇴행성 관절 질환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과: 이상의 검사들을 통해 두갈래근 힘줄 윤활막염으로 진단하고 일차적으로 약물적 치료가 실시하였다. Methylprednisolone acetate 40 mg을 관절낭내로 주사하였으며 운동제한을 위해 carpal flexion bandage를 실시하였다. 3주간의 운동제한 후에 증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으면 2차 약물치료 또는 힘줄 절단술(힘줄고정술, 힘줄박리술)등을 통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임상적 의의: 두갈래근 힘줄 윤활막염은 병력, 신체 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고 상태의 정도에 따라 약물치료 또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선택 될 수 있다. 본 질환은 국내에서는 드문 예로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Corresponding author: jsmok@cnu.ac.kr